

雲門

불기 2558년
여름호
통권 제129호
雲門僧伽大學



구름문을 펼치다

- ▣ 올해 여름 원두반 스님들의 아름다운 품의 결실에 격려와 사랑을 보냅니다. 흙밭에서의 결실처럼 우리 마음밭에서의 풍성한 결실도 기대할께요. / 주지 일진
- ▣ 매 순간순간 수십 번 일어나는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알아차릴 수 있는 마음을 보는 힘을 키우고 싶습니다. “덥다 덥다”가 아니고 “좋아 좋아 좋아”가 될 수 있도록……. / 사교과 우담
- ▣ 여름 한 철 ‘나의 첫 마음이 무엇이었던가?’를 회두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 사집과 법민
- ▣ 색색으로 찬란했던 만큼, 어쩌면 그보다도 더 잔인했던 봄이었습니다. 다가온 여름엔 모두 함께 슬픔을 딛고 일어서길, 내가 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 사집과 무진
- ▣ 봄철 치문반 참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여름철도 서로 힘들고 지치더라도 배려하고 다독이며 무더운 여름철 잘 지내도록 해요. 치문반 파이팅! / 사미니과 혜성
- ▣ 모두가 힘들다는 첫철과 봄 방학을 무사히 지낸 치문반이 내심 뿌듯합니다. 한마음이 되면 여름 한 철 무더위도 잘 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치문반은 살아 있다!!!! / 사미니과 법광

雲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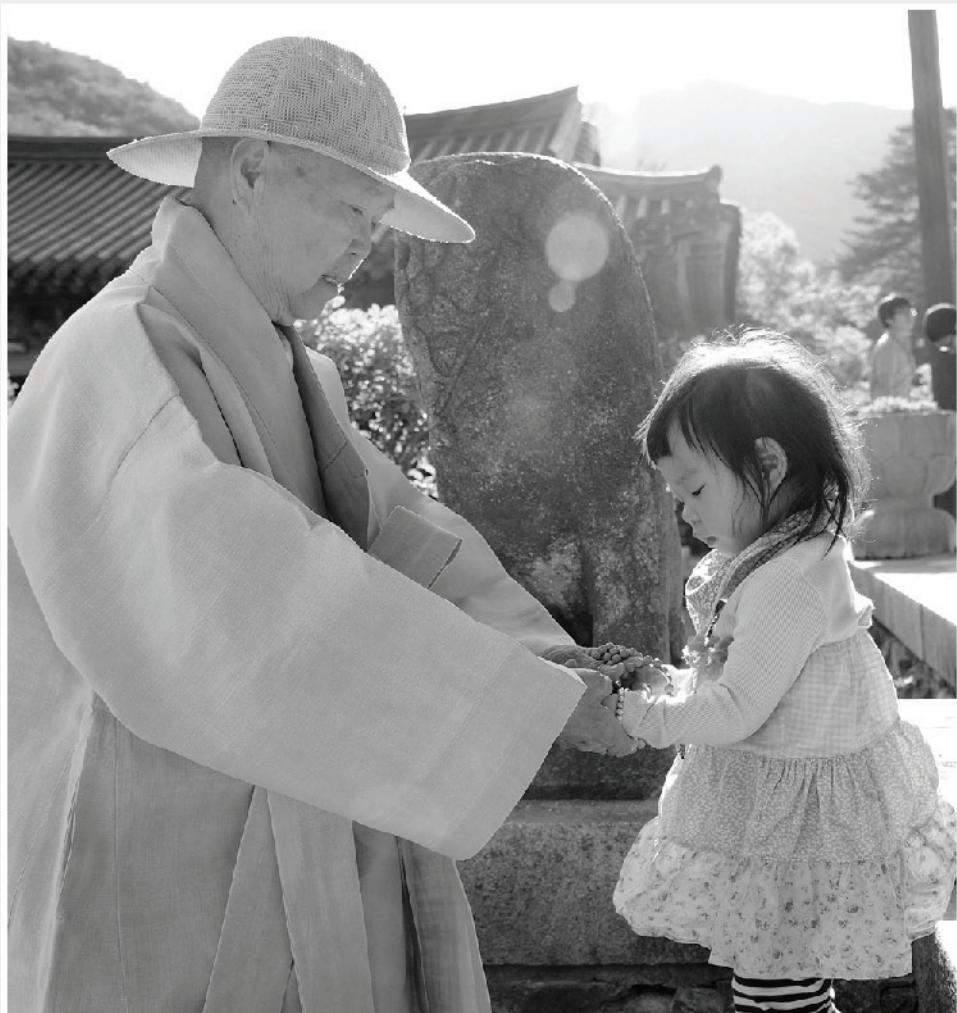
목차

- | | | |
|----|----------------|--|
| 02 | 호가산 운문사 | 구름문을 펼치다 |
| 04 | 죽림현 | 알면 사랑한다 평성 |
| 06 | 교수논단 | 머리와 가슴의 조화 ① 서평 |
| 10 | 풍경소리 | 팽목항 일몰 영역 |
| 12 |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 어떤 소식 일진 |
| 14 | 자유기고 |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 명현 |
| 15 | 깨달음으로 가는 길 | The diamond that cuts through illusion 편집부 |
| 16 | 기획연재 | 티베트의 큰 강원에서 5대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방법 석소남 |
| 19 | 운문, 운문인 | 천진불이여 영원하라 편집부 |
| 20 | 특별기고 | 유럽에서의 불교수행 휴정 |
| 23 | 想 | 단오산행 진웅 |
| 24 | 담소 | 우리 스님의 기도 명훈 |
| 26 | 차례법문 | 대중 제준 |
| 28 | 학인논단 | 『繙門』에 나타난 불교 수용 양상 ② 동우 |
| 32 | 수행의 두레박 하나 | 다시, 시작할 당신에게 보경 |
| 34 | 수행의 두레박 둘 | 밭에서의 깨달음 선경 |
| 36 | 수행의 두레박 셋 | 비구니의 좌충우돌 치문기 혜성 |
| 38 | 사찰탐방 | 건봉사의 천년 역사 유정 |
| 40 | 이 한 권의 책 | 논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랑이다 보경 |
| 42 | 운문소식 | |
| 43 | 등불 | 통권 129호, 여름호, “타오름 달” |



알면 사랑한다

명성 / 운문사승가대학 회주



포행을 하던 어느 날 아침, 수목원을 걷다가 마른 풀섶에 편 참으로 아름다운 별꽃을 보았습니다. 해마다 별꽃이 피었고 풀들도 거기 있었을 텐데 저는 그제야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본’ 것입니다. 아침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별꽃이 보석보다도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발명품들은 이미 사람들이 익히 알던 자연에서 그 소재를 찾았습니다.

‘개미제국의 발견’, ‘인간과 동물’이라는 곤충과 동물에 관한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는 그의 책에서 ‘알면 사랑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징그럽게 여기는 곤충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들의 습성을 알면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에 사는 우리들은 갓 냉은 산새의 새끼가 얼마나 예쁜지 잘 압니다. 잠자리의 날개가 햇빛을 받으면 얼마나 예쁜 색으로 보이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자연에 대한 관심과 사랑만으로도 소중한 그 무엇을 발견하듯 수행인인 우리들은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우리 운문승가대학의 세 번째 학훈은 유통교해입니다. 우리에게는 온 세상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유통시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세상과 동떨어져서 ‘우리들만의 섬’으로 존재하지는 않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세상에 불법을 유통시키기는 힘들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가까이하게 되고 가까이해야 알게 됩니다. 사람들도 서로 모를 때에는 무관심하다가 알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고 자주 접하다보면 사랑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 출가자들의 가장 큰 화두는 성불과 중생제도입니다. 수행인들에게 진리를 구하는 것은 밥처럼, 공기처럼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더불어 수행자인 우리들이 가장 가까이하며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지를 알면 마음 깊이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그들을 알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더 많이 알고 싶어지고, 사랑이 점점 커져서 모두가 더 큰 하나가 된다면 그것이 중생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대의 변화도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미래학자들은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감성의 시대, 여성의 시대, 노령화의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망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미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변화의 방향은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변화의 방향을 잘 알고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실천궁행해서 그 변화를 주도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내 주변의 작은 것부터, 내 이웃의 작은 아픔부터 관심과 애정으로 알아간다면, 거기서부터 진정한 입지발원과 유통교해가 실현될 것입니다. ●

머리와 가슴의 조화 ①

서광 / 윤문사승가대학 강사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심장은 어떤 기관인가
 - 1. 심장의 기능
 - 2. 심장과 뇌의 소통
 - 3. 심장지능
- III. 심장작용과의 공명
 - 1. 사성제와 심장작용과의 관계
 - 2. 심장에게 묻다
- IV. 나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서산 대사가 그의 저서 선가귀감에서 이치는 단박에 깨칠 수 있어도 벼룩은 한꺼번에 고쳐지지 않는다(理雖頓悟 事非頓除)고 했듯이, 우리는 일상의 인간관계에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를 아주 흔하게 경험한다. 그것은 머리로 아는 것은 온전하게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해와 논리, 추론, 상상 등이 주된 작업인 머리로는 얼마든지 왜곡이 가능하고 합리화, 부정, 투사 등 갖가지 심리적 방어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머리에서 가슴까지 불과 30센티미터 남짓하지만 머리로 이해된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는 수년, 수십 년이 걸리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평생에 걸쳐 노력해도 어렵다고들 한다.

오랫동안 초기불전 연구에 전념해 온 각국 스님은 불교초기경전과 논서와 주석서에서 뇌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비달마를 근거로 심장은 마음이 의지하거나 깃들이 일어나는 중요한 물질적 토대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전통적으로 서양의 뇌신경과학자들은 우리가 마음, 영혼,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모두 뇌의 기능이고 작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뇌의 신경세포는 어떤 시기에 일단 형성되고 나면 일생 동안 변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가 지난 10여 년 전부터 달라이라마의 영향을 받은 뇌과학자들에 의해서 불교의 명상수행이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음을 바꾸면 뇌도 따라서 변화한다는 사실을 MRI 뇌사진을 통해서 입증하면서 뇌의 가소성을 주장했다. 이후 다양한 방식의 명상수행들이 분노, 우울, 불안 등의 정서를 조절하는 뇌의 영역들 뿐만이 아니라 면역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뇌 영역의 작용들을 변화시킨다는 연구결과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개인적으로 오늘날 불교의 명상수행과 힐링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데 절대적 공헌을 해 온 뇌과학에 무한히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불교수행과 뇌과학의 치우친 공조가 자칫 우리의 주의를 뇌의 기능과 작용에 지나치게 고정시키게 되지는 않나 염려스럽기도 하다. 나는 지난 2013년 2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있었던 <불교의 이해와 연민심 개발 워크숍>에 참석하면서 뇌과학과 관련된 힐링전문가들에게 나의 염려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그들에 의하면 심장은 뇌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의 과학적 기술로 불교 수행과 심장작용의 관계를 뇌과학처럼 밝혀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적 증명이 아닌 경험적 입장에서, 진정한 깨달음과 인격의 변화, 성장은 머리만으로는 부족하고, 심장이 동조해야 된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뇌과학과 불교수행의 만남처럼, 심장과학과 불교수행이 만남으로써 미래의 힐링은 불교수행이 머리와 심장의 공조, 조화로운 개발을 토대로 거듭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직 충분히 연구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 연구는 가슴, 심장의 기능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심장에 기반을 둔 명상수행을 어떤 방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지를 탐색해 봄으로써 건강한 마음과 육체를 유지하고 배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심장은 어떤 기관인가

1. 심장의 기능

심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심장 관련 연구에 초점을 맞추는 하트메스 연구소의 발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¹⁾ 심장을 생각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입력정보를 해독하고 명령을 내리는 두뇌와는 달리 그냥 온몸에 피를 공급하고 죽을 때까지 혈액순환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펌프

프질하는 수동적인 기관 정도로 생각해 왔었다. 그런데 전통 한의학에서는 심장이 정신과 육체가 만나는 곳이며 그 둘을 연결시키는 다리를 놓아주는 곳으로 본다고 한다. 특히 고대 중국사전에는 뇌와 심장이 비단실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한의원을 찾았던 우리들의 경험을 상기해 본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리라 믿는다. 즉 한의사들은 심장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혈관의 맥박을 짚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어디에 이상이 있고, 또 어떤 질병이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한편 현대의학이 말하는 심장의 생물학적 기능을 살펴보면, 심장은 하루에 10만번씩 박동하고, 1년에 약 4천만번, 평생 30억 번 이상을 박동한다고 한다. 또 분당 거의 7.6리터의 혈액을 펌프질하고 시간당 378리터가 넘는 혈액을 9656킬로미터까지 순환시킨다고 한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동안 약 23만 천 7백 45킬로미터를 순환하는데, 이는 무려 하루에 지구둘레를 5번 이상 도는 거리다.

통상적으로 과학자들은 신체의 움직임이나 판단 등 인지, 지각과정과 관련된 작용은 뇌가 모든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해 왔다.²⁾ 그러나 스트레스 솔루션의 저자 닉 퀄드리와 하워드 마틴에 의하면, 과학자들은 아직 무엇이 심장을 뛰도록 자극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심장은 태아의 두뇌가 생기기 이전부터 뛰기 시작한다고 한다. 또 이들은 두뇌의 자율신경을 통해서 심장박동의 간격이 통제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뇌와 연결되지 않고도 심장박동은 계속된다고 한다. 그 예가 사람이 심장이식을 받을 때, 뇌로부터 연결되는 신경은 모두 끊어지게 되는데 현대의학으로는 그 신경을 어떻게 다시

1) 참고 : <http://www.heartmath.org/>; 닉 퀄드리, 하워드 마틴의 저서 Heartmath Solution(스트레스 솔루션, 하영목 번역, 들녘미디어).

2)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801030006>

연결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신경이 연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심장박동이 멈추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냥 새로운 사람에게 심장을 이식하는 수술이 끝난 다음 심장과 뇌를 연결하지 않고도 의사가 자극을 주기만 하면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심장과학의 연구들은 뇌가 우리 신체와 마음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중앙시스템이라는 전통적 관념과는 달리 심장 중심의 새로운 시스템을 주장하고 있다.

2. 심장과 뇌의 소통

최근에 신경과학자들은 심장이 자체내의 신경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뇌의 편도체(amygdala)와 시상(thalamus), 대뇌피질(cortex)과 같은 다양한 뇌부위에 신호를 보내고,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편도체는 뇌의 감정처리 시스템에 위치한 아몬드 모양으로, 정서적 기억을 주로 담당하면서 위험을 인지하는 주된 역할을 하는 곳이다. 주변 대상들이 위험한 자극이라는 판단이 들면 몸을 긴장시키고 방어태세를 갖게 하는 비상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시상은 오감, 즉 눈, 귀, 코, 입,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극을 종합하여 생각기능을 하는 대뇌피질로 보낸다. 불교의 유식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시상은 제6식의 기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뇌피질은 인간에게서 유일하게 발달한 영역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 기억, 상상, 운동, 언어 등 주로 학습과 사고기능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들 연구에 의하면 심장은 정서기능과 사고기능, 운동, 언어영역까지 관장하며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다.

그럼 심장이 어떻게 뇌와 신체의 여러 부위들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지 이들이 소개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스트레스 솔루션은 3가지 방식으로 심장은 뇌와 우리 몸의 부위들과 신호를 주고받는다고 한다. 첫째, 신경의 전기적 흐름을 통해서 소통하는 신경과학적 방법이다. 앞에서 잠깐 소개했듯이 심장의 뇌는 여러

종류의 뉴런과 단백질, 신경전달물질과 세포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은 두뇌와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학습, 기억, 지각, 느낌이 가능하고 심장에서 처리된 정보들은 중추신경과 미주신경을 통해서 대뇌피질로 보내진다는 것이다. 그렇게 심장으로부터 나온 메시지는 생각과 추론, 지각과 정서,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호르몬과 신경전달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생화학적 방법이다. 심장에서 생성되는 심방나트륨이뇨인자(ANF : Atrial Natriuretic Factor), 또는 심방아미노산합성물(Atrial Peptide)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은 혈압과 신장기능, 아드레날린 분비 등을 자동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연구들은 심방나트륨이뇨인자가 스트레스 호르몬의 방출을 조절하고, 생식기관의 성장과 기능 촉진, 면역시스템, 행동의 동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뇌에서 정서를 조절하는 화학물질로 알려진 노드아드레날린과 도파민 신경전달 물질도 심장이 합성하여 방출한다고 한다. 셋째, 심장의 파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생물물리학적 방법이다. 심장은 동맥을 통해서 강한 혈압파동을 만드는데, 혈압파동의 진동이 일종의 언어역할을 하면서 뇌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우리가 만일 지나치게 머리를 쓰거나 탐욕, 화, 어리석음에 오염되지 않고 약간의 알아차림만 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의도 등의 진정성을 파악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3. 심장지능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일어난다. 심장박동이 단순히 뇌로부터 오는 신호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능적인 언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트메스 솔루션의 저자 닥 월드리와 하워드 마틴이 심장에도 뇌와 같은 뉴런이 있고, 지능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

는 근본 목적은 무엇인가? 이유는 심장지능이 우리의 내면적인 삶과 대인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정서지능의 근원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즉 심장지능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정서로 바꾼다는 것이다. 심장이 박동하는 패턴, 또는 심장 리듬이 우리 내면의 정서 상태를 잘 나타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심장에 좀더 귀를 기울이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정서, 감정조절은 물론이고 현상을 왜곡하거나 방어하지 않게 되고, 보다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 사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심장지능에 좀더 주의를 기울이고 따를수록 우리의 정서는 그만큼 균형과 조화, 통일성을 유지하게 되고, 그러한 정신적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일상과 전문적 일의 효율성은 극대화될 것이고, 대인관계 또한 진실하고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흔히 지혜로운 영적 스승들이나 진실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자아실현을 이룬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머리를 따르지 말고 가슴을 따르라고 충고한다. 왜냐하면 심장은 직관과 통찰, 지혜와 같은 정신작용과 관련되어 있고, 인지, 사고, 추론하는 기능은 두뇌작용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심장지능을 따르지 않고 두뇌의 지시에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문제를 지나치게 분석하고 개념화한 나머지 마음은 훨씬 더 고단하고 메마르며 분별망상으로 인한 어리석은 결정이나 행위를 하게 된다는 심장지능 관련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뇌과학이나 심장과학과 관련된 연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에서 ‘머리’를 사용한다고 하면 사고, 기억, 계획, 조작, 유추, 상상하는 능력과 연관시킨다. 반면에 ‘가슴’이라고 할 때는 연민, 사랑, 감사, 지혜, 배려, 직관, 용서 등과 같은 정신특질과 연관지어서 표현한다. 또 부정적인 의미로 ‘머리 굴린다’는 말은 해도 ‘가슴 굴린다’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딱 월드리와 하워드 마틴 또한 심장의 핵심감정으로 감사, 배려, 연민, 판단하지 않음, 용서 등을 언급하고 이러한 정신특질들은 심장의 강력한 도구라고 불렀다.

심장지능과 관련된 연구들은 우리가 타자,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이 자기비난이나 파괴에서 자기수용과 연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강력한 설득력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그동안 편리함을 추구하고, 두뇌사용에 편중한 결과로 빚어진 인간성의 상실과 파괴, 만성적인 병리적 사회구조, 자연파괴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머리가 아닌 심장이 보내오는 메시지를 해독하는 방법, 즉 심장지능 지수를 끌어올리는 방법을 배우라고 조언한다. ●

〈다음호에 계속〉

팽목항 일몰

- 2014.5.19 -

영덕 / 운문사승가대학 강사

기다려 본 자만이 안다.
갈비뼈 사이로
번지는 꺾빛 노을

소리조차 흘리지 못한 채
신음처럼 붉은 노을이
하늘을 적신다.

애시당초 뼈를
쪼개어 만든
아이였다.
남은 열여덟 명

옛날에도 그랬다.
고려의 사대로 태어나
지켜내지 못한 것이
처자식뿐이었던가

명줄 이미 놓았어도
기슴에 다시 물을
손가락뼈 기다리며

유린 당한 산천에
더운 피 뿐려 참회하던
차마 무릎 끓을 수 없었던
그날의 항쟁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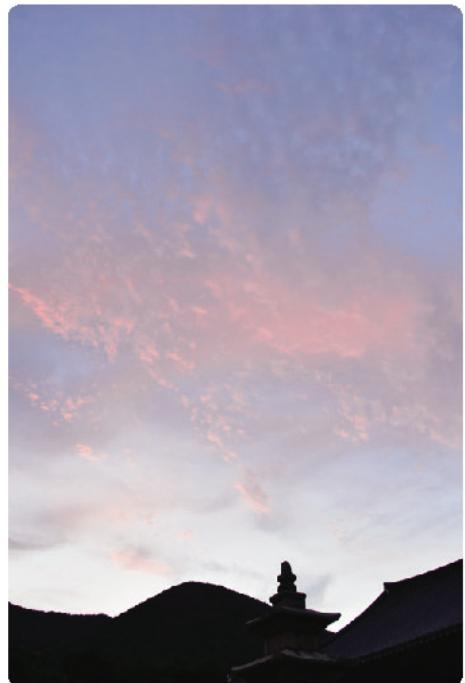
해풍에 얇아진
어머니의 등 뒤에서
노을이 운다.

진도 노을은
아리랑보다
아프다. ☺

망부석 아버지
시선 머문
관매도 물결 위에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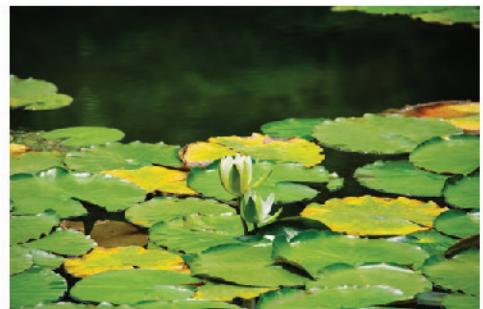
어떤 소식

일진 / 운문사 주지

그날은 운문사의 새벽을 여는 도량석 목탁소리도, 새벽 범종소리도 없었던 새벽이었다. 분명 운문에서의 평범한 일상이 아닌 아침이었다. 47기 행자교육을 위한 임원회의차 서울 출타중이어서 평소보다 조금은 이완된 아침을 준비하던 중 오대산 지장암 소식을 알리는 전화가 왔었다. 평소 생각지도 않았던 터라 나는 깜짝 놀라고 또 놀랐었다.

소식消息이란? 숨쉬는 일이 답답할 정도로 궁금증이 나서 막막한 것을 녹여주는 것 그래서 큰 호흡을 하여 시원하게 확 튀어주는 것이 소식이라 했던가? 음기가 사라지고(消) 양기가 생기는(息) 것이 소식이라면 분명 서로 통하여 시원하게 되는 것이 소식의 뜻이다. 처음 군대에 입대한 아들의 일이 너무 궁금하여 답답하던 중 잘 적응하고 잘 살고 있다는 소식, 기별이 왔다면 그 어머니의 가슴이 시원해질 것이다.

요즘 살다보면 세상에는 아침마다, 저녁 9시뉴스시간마다 놀라운 소식들이 많기도 하다. 여러 가지 소식 중 오늘 아침 오대산 지장암의 개인적인 소식은 그냥 나를 그 자리에 멈춰있게 하였다. 평소 우리는 서로가 바쁘다는 평계로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얼마 전 서울에서 강원 졸업한 지 40여 년 가까워지는 도반모임이 있었다. 목적은 밥 한 끼 같이 먹기였다. 하얀거 결제 바로 다음날이라서 선원 감원소임을 살고 있는 이 도반은 거기에 나오지 않고 우리는 자연스런 일로 생각했다. 나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만나거나 전화를 자주 하지도 못했다. 얼마 전인가 학인(상좌)일로 의논할 겸 잠깐 통화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도반이지만 주지소임은 까마득한 후배주지인 나에게 강원도 산나물이라면서 싱싱한 취나물에 우정까지 담아 보내준 택배를 받은 일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아침 이승의 명을 다하고 아주 갔다는 소식이 왔다. 그 소식은 너무나 답답하고 가슴 먹먹한 소식이었다. 나는 생사가 하나라고 들어왔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말해왔다. 그런데 지금 나는 무척 궁금하다. 훌연히 떠나버린 나의 도반 죽음의 소식이……. 도반 영전에 궁금한 소식의 조사를 올린다.



조사 비구니 명덕 자원당 정안 스님

오만진신의 성지 - 오대산이 한없이 푸르른 날에, 스님, 훌연히 어디로 가셨습니까!

스무살 병 깊던 날을 뒤로 하고 총총히 불문에 들어,
바람결 그 깊은 그늘을 환하게 누비시던, 그 모습 어디로 가면 뵈을 수 있습니까!

붓자루 꽂꽂이 세워 먹물 저어서, 부처님 말씀 한지위에 새기시던 단아한 그 모습,
어느 날에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후박꽃 훌날리던 운문사 큰 도량에, 땅에 내린 별빛처럼 빛나던 그 영롱한 눈빛은
다시 어느 날에 마주할 수 있습니까!

어둡고 아픈 그늘에 선 그들이 누구이든, 지장의 혼신처럼 다가가 마주잡던 따뜻한 그 손길,
언제 쯤 다시 잡아 볼 수 있습니까?

자비로운 큰 눈길과 아무진 입매로, 고개 숙인 제자를 어루만지던 아름답던 그 자태는,
이제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지치고 고단한 몸을 자주 뉘이며, 그래도 가람수호와 대중외호는 놓을 수 없다하며,
무던히도 참아내던 뼈 아픈 뒷모습은, 어느 날이나 돌아서서 다시 안아볼 수 있습니까?

한 치라도 더 부처님께 가고파서, 밤 깊은 적요 속에 넘기시던 경전의 일새들이,
아직도 따뜻한데, 스님 어디에 꼭꼭 숨으셨습니까!

기린선원 좌복 위에 염연하신 그 위의, 아직도 선연한데,
도량 곳곳 미소짓던 자애로운 그 모습, 잡힐 듯 가까운데,
스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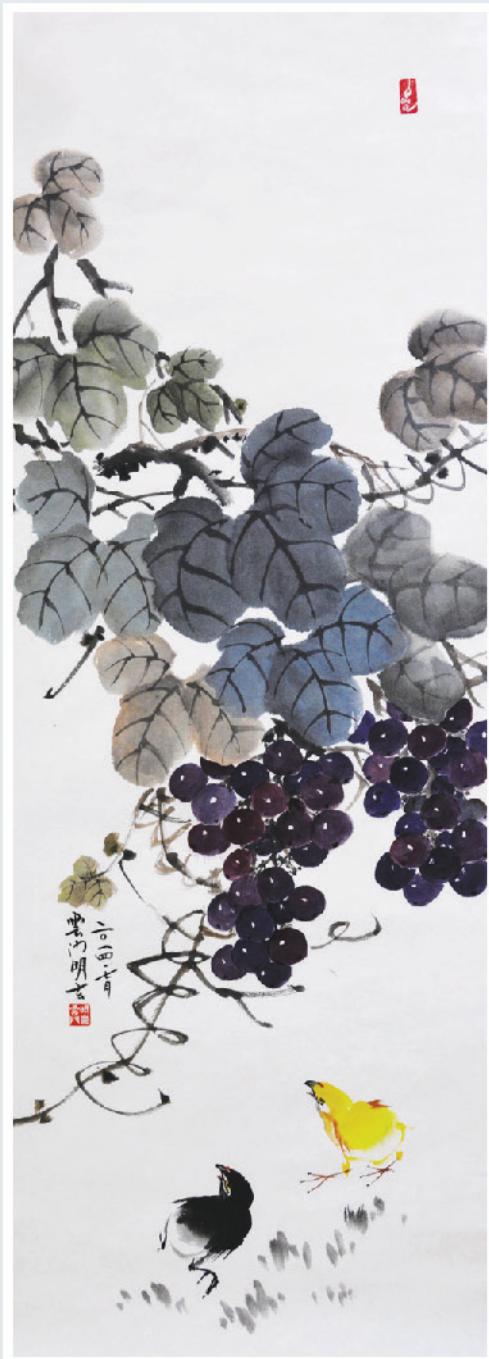
스님과 함께 했던 눈부신 기억들이, 이제 가슴 치는 아픔으로
우리들의 가슴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스님!

몸으로 마음으로 잊지 않겠습니다. 불문에 새겨진, 스님만의 그윽한 신심을!

법문으로 남겨진, 스님만의 인고의 나날을!

승문에 잊혀질 수 없는, 스님만의 눈부신 행적을! ●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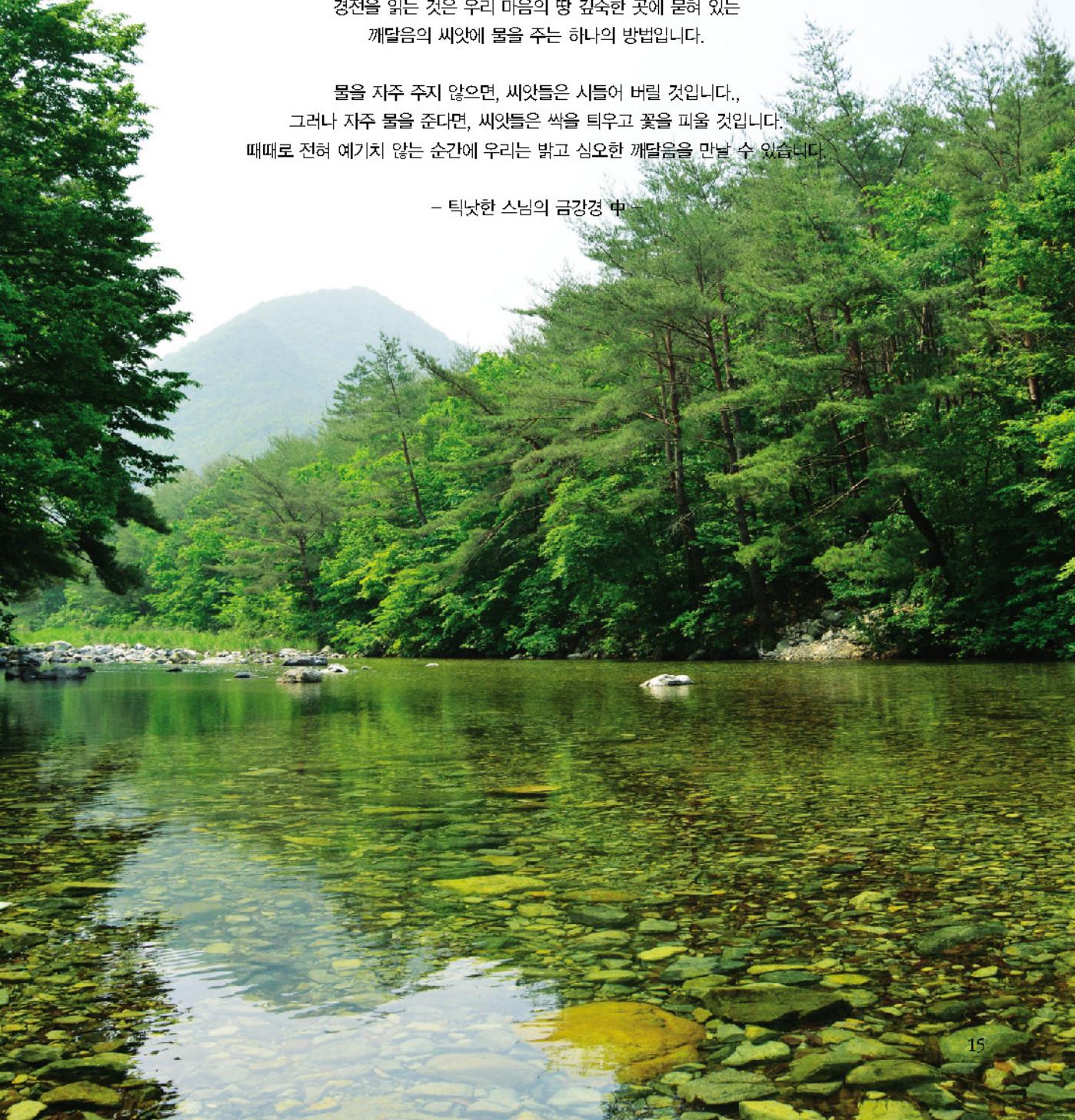
명현 / 한문불전대학원 1학년

The diamond that cuts through illusion

경전을 읽는 것은 우리 마음의 땅 깊숙한 곳에 묻혀 있는
깨달음의 씨앗에 물을 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을 자주 주지 않으면, 씨앗들은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자주 물을 준다면, 씨앗들은 씩을 틔우고 꽃을 피울 것입니다.
때때로 전혀 예기치 않는 순간에 우리는 밝고 심오한 깨달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 틱낫한 스님의 금강경 中 -



티베트의 큰 강원에서 5대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방법

석소남 / 부산 광성사 주지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티베트의 대강원에서 경전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티베트의 망명정부는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 있습니다.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각국에 있는 망명인구는 약 13만 명 정도이며, 그 중에서 승려는 약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까, 넝마, 까쮸, 젤룩, 본까지 크게 다섯 가지 종파가 있습니다. 젤룩파의 대표적인 큰 절은 세라, 데뽕, 간덴의 3대 사찰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통도사, 해인사, 송평사를 불법승 삼보사찰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공부한 절은 데뽕사원입니다. 데뽕사원은 또 로셀링과 고망 두 절로 나뉩니다.

로셀링은 스님 약 2500명, 고망에는 약 2000명으로 데뽕사원에 총 4500명의 스님들이 공부(교학)와 수행(중학)을 하고 계십니다. 로셀링 강원에는 1학년부터 17~19학년까지 있습니다. 주로 〈인명학因明學〉, 〈반야학般若學〉, 〈중관학中觀學〉, 〈율 律〉, 〈구사론俱舍論〉 등 5대 경전을 배우는 교육방법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5대경을 배울 때에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무조건 경전을 외워야 합니다.

둘째, 경을 보지 않고 외우는 연습을 자주 해야 합니다.

셋째, 뜻을 알기 위해 스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넷째, 경전에 대한 여러 해석들을 자주 보아야 합니다.

다섯째,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해 경의 내용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불교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基础 - 기본 바탕인 세속제와 진제의 이성제

도道 - 방편의 보리심과 반야의 지혜 두 가지 방법

과果 - 법신과 색신의 두 가지 과위果位

다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기基, 즉 기본이 되는 사성제, 이성제 등 존재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도道, 즉 수행은 앞서 존재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현실에 맞는 오도五道와 십지十地 등 방편과 지혜의 수행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과果, 즉 결과는 존재론과 수행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현실과 맞는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과위果位, 즉 법신法身, 화신化身, 보신報身 등 부처의 신구의身口意의 공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듀라>를 배웁니다.

<듀라(설류학攝類學)>는 <인명학因明學>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논리 이론을 최초로 배우는 과목으로, 티베트의 스승이신 차빠 죄끼 생계께서 경량부經量部의 이론 방식을 접목하여 량量의 전반적인 의미를 요약하여 ‘듀라’라고 정하였습니다. <듀라>는 소논리小論理, 중논리中論理, 대논리大論理 세 가지로 나뉘며, 기기, 도道, 과果 세 가지 중 주로 존재론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로릭(심류학心類學)>을 배웁니다.

구체적인 심리학이 아닌 일반적인 마음의 종류 - 예를 들면 현량現量, 비량比量, 분별심分別心, 비분별심非分別心, 육식六識, 심왕心王, 심소心所 등등 - 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는 7종심식七種心識, 즉 현량식現量識, 비량식比量識, 재결식再決識, 사찰식伺察識, 현이미정식顯而未定識, 의심疑心, 전도식顛倒識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딱력(인류학因類學)>을 배웁니다.

진인眞因은 과인果因, 자성인自性因, 불가득인不可得因 세 가지로 나뉘며, 사인似因 또한 상위인相違因, 부정인不定因, 불성인不成因 세 가지로 나뉩니다.

네 번째, <둡타(종의宗義)>를 배웁니다.

종의는 학파, 교파라고도 부릅니다. 외도나 불교도의 견해에 따라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철학적 바탕(基), 수행방식(道), 그 결과(果) 셋에 대한 교리적 설명 방식 등을 말합니다. 간략하게 고대 인도의 외도 5개 파派인 논의오파論議五派(수론파數論派, 순세파順世派, 승론파勝論派, 폐타파吠陀派, 이계파離繫派)과 불교도의 4대 학파인 유부有部, 경량부經量部, 유식학파唯識學派, 중관학파中觀學派로 나눕니다.

다섯 번째, <살람(지도地道)>을 배웁니다.

보살의 십지十地(환희지歡喜地, 이구지離垢地, 발광지發光地, 염혜지焰慧地, 난승지難勝地, 현전지現前地, 원행지遠行地, 부동지不動地, 선혜지善慧地, 법운지法雲地)와 오도五道(자랑도資糧道, 가행도加行道, 견도見道, 수도修道, 무학도無學道), 그리고 성문도聲聞道, 연각도緣覺道, 보살도菩薩道에 대해 배웁니다. 이상의 과정을 배우는 데 대략 4년 정도 걸립니다.

여섯 번째, <석량론釋量論>을 배웁니다.

석량품釋量品 또는 광본양학廣本量學이라고도 하며, 고대 인도의 위대한 스승 법칭法稱보살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이 논서는 자리自利, 양성립量成立, 현전現前과 타리他利 등 4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례, 인명칠론因明七論 중에서 세 근본이 되는 논서 중 하나입니다. 〈돌타(종의宗義)〉를 배우고 난 뒤 대략 10년 이상 해마다 겨울철 한 달씩 스님들이 한 절에 모여 집중적으로 배우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반야현관장엄론般若現觀莊嚴論〉을 7년 동안 배웁니다.

미륵오론인 〈현관장엄론〉, 〈대승장엄론〉, 〈중변분별론〉, 〈법법성분분별론〉, 〈구경일승보성론〉 중의 하나입니다. 그 내용은 일체종지, 도지, 일체지, 일체오동현관, 정현관, 차제현관, 찰나오동현관과 법신 등 8가지로 보살도의 모든 수행과 부처님의 경지인 과위果位에 대해 설명한 미륵보살님께서 지으신 논서입니다.

여덟 번째, 〈입중론入中論〉을 3년 동안 배웁니다. 용수보살님께서 지으신 〈중관中觀〉의 논서인 〈입중론〉은 월정보살님(잔드라끼르띠)께서 저술하셨고, 10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로 중관사상 즉 공성空性과 연기緣起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율경근본율律經根本律〉을 4년 동안 배웁니다. 인도의 위대한 을사律師 공덕광보살님께서 4부 율전律典의 내용을 해석한 것입니다. 주로 계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17가지로 나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구사론俱舍論〉을 2년 동안 배웁니다.

〈아비달마 구사론본송〉이라고도 하며, 인도의 위대한 스승이신 세친보살님께서 저술하신 소승小乘의 논서로 본문은 계송체이고 8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당나라 삼장 현장법사께서 범어를 한문으로 역경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교顯教에 대해 거의 20년 정도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밀교密教 공부를 시작하는데 기간 없이 평생 공부합니다. 그리고 공부 따로 수행 따로 없이 배움 그 자체를 수행으로 생각하고, 문사수聞思修를 통해 경전 공부를 합니다.

문聞 즉 배움으로써 경전의 뜻을 타력他力으로 대충 이해하게 만듭니다.

사思 즉 깊게 생각함으로써 경전의 뜻을 자력自力으로 확실하게 확신이 생기게 만듭니다.

수修 즉 닦음으로써 경전의 뜻을 깊게 마음에 익히게 만듭니다.

문聞 즉 배움이 부족하면 문혜聞慧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문혜聞慧가 부족하면 사思 즉 관찰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사思가 부족하면 사혜思慧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聞, 문혜聞慧, 사思, 사혜思慧의 바탕이 없으면 수修 즉 도道 닦는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에, 무엇보다 먼저 경전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티베트 강원의 스승님들께서 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티베트 큰 강원에서는 문사수聞思修의 과정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 5대 경전 등 불경과 논서들을 체계적으로 배움으로써 먼저 현교顯教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얻게 하며 마음에 깊게 익히도록 하고 난 뒤 밀교密教의 깊은 수행법을 배우고 실천 수행하도록 합니다.

다음에 인연이 된다면 5대 경전 각각의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천진불이여 영원하라

| 제35회 운문사 여름불교학교 |



유럽에서의 불교수행

휴정 / 사미니파

근래 유럽에서는 아시아 종교와 가르침들 가운데 특히 불교가 점차 인기를 얻고 있다. 19세기 중후반 불교가 서구 지식인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유럽에서 불교는 스님뿐 아니라 철학자를 통해서도 전해졌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쇼펜하우어와 니체이다.

유럽에서도 다수의 불교신자가 있는 나라는 독일, 이태리, 프랑스, 영국이다. 이들 국가에는 티베트불교와 남방불교, 선불교가 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 독일 뮌헨과 몇몇 도시에서는 웨삭(부처님오신날)과 같은 불교행사도 개최되고 있다. 그날은 지역 내 모든 불교 단체들이 부처님오신날을 함께 축하하며 법문과 워크숍, 토론시간 등을 갖는다.

하지만 모든 유럽국가의 종교 실정이 꼭 이렇지만은 않다. 체코인구의 약 80%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종교들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열려 있는 문’ 인셈이다. 과거 공산주의의 역사(1948~1989) 때문에 구세대들은 모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다소 회의론적이며 폐쇄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체코는(종교에 있어) 서로를 배척하지 않는 편이다.

이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한 가지 재미있는 경험이 있다. 카톨릭 신부님으로부터 선 명상 수업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는 만트라(진언)명상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 또한 현자 스님의 경우 독일의 한 교구교회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었다.

그렇다면 전형적인 유럽인들은 어떻게 불교를 접하게 될까? 보통 체코에서는 고등학교의 철학수업에서 불교를 처음 접하며 무술이나 다도, 일본식 꽃꽂이, 여행 그리고 영화 같은 특별활동을 계기로 접하게 된다. 이런 기회를 통해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갖게 되고 불교 도서를 읽기 시작하거나 스님 또는 재가 법사의 강의를 청강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단지 자신의 스승과 자기가 따르고 자하는 불교를 찾는 작은 시작일 뿐이다.

나는 무술을 배우면서 선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후 선과 관련된 많은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승산 스님의 일상생활에서 항상 ‘Big Question’과 ‘Don’t know Mind’



를 생각하며 살리는 가르침에 감명받았다. 다른 큰스님과 달리 송산 스님의 가르침은 단순하고 실천하기 쉽다. 나는 이 단순함이 좋아서 송산 스님이 세우신 관음선학교에서 수행을 시작했다.

정기적으로 함께하는 참선 수업과 수련회에 참여해 오기를 몇 년, 나는 출가를 결심했다. 한 스승님의 소개로 지금의 온사스님과 인연이 되어 체코의 작은 마을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선불교 수행을 하기 시작한 초반에 나는 수행에 대한 지식이나 유럽 내의 다른 불교의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프랑스와 독일에 턱낫한 스님의 풀럼 빌리지 센터와 몇몇 티베트사원과 선사원, 그리고 헝가리에 있는 수덕사 말사인 원광사와 같은 한국 절들 외에 불교종단은 사원이 없이 유럽 전 지역에 퍼져 있다. 이 단체들은 사원을 세울 수 있을 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자본과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소규모로 수행센터나 신도의 집 또는 건물 임대 등을 통해 수행공간을 마련한다. 때문에 스님들의 생활 공간이 있는 곳은 몇몇의 큰 절이 고작이다. 만약 소규모 센터를 운영하며 생활이라도 하려면 센터 운영 및 생활 전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벌어야 하므로 스님들이 유럽에서 살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럼 선 수행 센터의 모습은 어떨까? 수행자들은 집에서도 센터에서처럼 수행을 하며, 대부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만나서 함께 108배와 예불 그리고 두세 번의 참선 시간을 갖는다. 큰 선 센터의 경우 이른 아침 시간에도 저녁 타임과 동일한 수행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참선 수련회가 있을 때는 올력도 하고 동방아도 입으며 발우공양도 한다. 이것은 불교 수행의 일부분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각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선원의 교리 교육은 기본적으로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 부처님의 생애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외에도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육조단경 그리고 유마경 등 널리 알려진 경전을 중심으로 간경과 참선을 병행한다. 관음선학교에서는 공안, 화두, 진언, 절 그리고 기도로 수행을 한다.

현재 나는 선 수행자이자 강원의 학인으로서 한 가지 의문에 봉착해 있다. 오래 전부터 선객들과 경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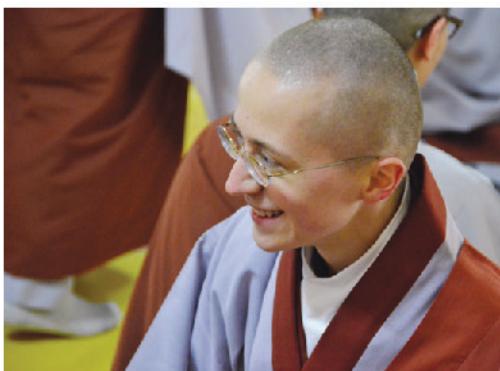
부를 하는 스님들 사이에 서로 의견 충돌이 적지 않았다고 들었다. 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는 봄다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왔다. 반면 선객들은 생각만으로는 그분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봄다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며, 한 개의 번뇌가 수많은 고통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단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다투고 소중한 시간을 헛되게 보내며 그저 자신의 본능을 따라 산다면 어떻게 그를 수행자라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항상 음식을 먹는 것처럼 경을 읽고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처럼 좌선하려고 한다. 우리의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듯 경을 읽고 좌선을 하는 것이 수행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서구의 승가는 여전히 몇몇 문제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어 불교의 가르침은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들로 번역되어야 하는 일이 절실하다. 또한 이 (불교)단체들은 아주 작기 때문에 재정적 문제가 심각하다. 나는 불교를 세계로 전파하기 위해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는 선 수행을 하는 모임에 자격 요건을 갖춘 선생님을 모시고 수련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재정적 보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는 외국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분명하고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 필요조건들이 갖추어지면 나머지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것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부지런히 정진하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과 성실한 수행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불법은 조금씩 전 세계로 퍼져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아시아로부터 멀리 떨어진 체코에서 이렇게 불법을 만난 것에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아름다운 불법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혜정 스님은
체코 즐린슬린에서 태어나서 2012년도에 출가하여
현재 운문사승가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영문번역은 사미니과 지연 스님이 해주었습니다.

단오산행

진옹 / 사교과



우리 스님의 기도

명훈 / 대교과

늦봄의 햇살에 푸름이 짙어질 무렵 봄철 입승 소임을 살았던 나는 치문의 방학 일과 중 하나인 자비도량 참법기도를 함께 하게 되었다.

출가 전부터 강원에 오기 전까지 매일같이 했던 기도이지만 강원에 와서는 특별한 기간에만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러나 이상하리 만큼 신기한 것은 느끼는 것이 매번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글귀가 있었나 싶게 가슴이 뭉클 할 때가 있다. 아마도 윤문사에서 한 해 한 해 보내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달라지고 있는 나 자신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누구든 출가의 중요한 동기를 주는 것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 집 사형 사제의 공통된 인연은 바로 이 참법기도이다. 처음부터 출가를 하겠다고 찾아간 것은 아니었지만 기도를 통하여 살아왔던 삶들과는 다른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모여 출가할 수 있는 마음을 내었으며 참회를 통하여 비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것은 20년이 넘게 참법기도를 하시고 신도분들과 나누시는 우리 스님의 수행이기도 하다.

참법은 양나라 무제가 죽은 황후 치씨를 위하여 참회문을 지은 것이다. 치씨는 살아서 질투와 화가 많았다. 그래서 물건도 부수고 사람도 죽였었는데 그 과보로 죽어서 구렁이가 되어 태어났다. 그런 치씨의 고통을 구제하려 스님들을 청하여 부처님의 명호를 기록하며 참회문을 지은 것이다. 결국 이 참법기도는 우리가 사는 동안 짓게 되는 모든 업과 나와 지어진 모든 인연에 참회하는 기도이고 그것들에서 놓여나기를 바라는 기도이다.

워낙 몸이 안 좋으셨던 우리 스님은 결제월 중 입선시간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아픈 날이 많으셨기에 더욱 기도를 하셨고 그때 하셨던 많은 기도 중에 다른 기도들보다 훨씬 더 스님께서 감응이 크셨다고 한다. 아마도 ‘나에게서 인연 지어진 것들이 풀리지 않는 데 어떻게 수행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셨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스님은 우리에게 얹힌 인연들에게 진정으로 참회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폐서부터 내 마음이 비워진다 하시며 이것이 되어야만 어떤 공부도 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신다.

처음에는 단지 당신에게 좋았던 기도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해제철이 되면 권선하기 시작한 것이 하나 둘 우리 스님의 신도가 되었고, 특별히 절이 없었던 스님께서 전국을 집집마다 다니시며 법회를 여신 것이 바탕이 되어 지금의 우리 절이, 우리 절을 찾는 신도들이 되었다. 기도를 하겠다고 찾아오는 분들을 보면 보통 순수하게 그냥 좋다는 말을 듣고, 기도하면 가피가 따른다는 사람들

의 단순한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마냥 바라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나를 비워서 참회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실타래처럼 얹힌 인연들은 나에게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참법을 진정으로 시작하게 된다. 나는 이것이 참법의 가피를 입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도를 처음 권선하실 때에는 이렇게 긴 기도를, 매일같이 해야 하는 기도를 과연 백일이나 할까 싶으셨다지만 스님의 마음을 읽었는지 천일을 넘어 이제 15년이 넘도록 하고 계신 분들도 많다. 아마 이분들은 진심으로 참회를 하게 되면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통들이 이생뿐만이 아닌 수많은 생을 걸쳐 지어진 것들이고 우리가 이런 진리를 받아들이면 하루하루가 편안해지는 참법의 묘미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삶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를 힘들게만 했던 문제들은 오히려 이생에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감사한 것들로 다가오게 된다. 그리고 참법은 참회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참법에는 환희지부터 법운지까지 10가지 계위의 보살들이 나오는데 참회해서 비워냈으면 보실행이라는 회향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아무리 비워내도 실천해서 다른 이들에게 회향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참회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꾸준히 되신 분들은 마음을 내서 이웃을 돋는다.

병원에 가서 아픈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배고픈 사람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게 하는 복만큼 큰 복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에 다행이 무료급식소, 독거노인, 학교 급식 등에 공양을 한다. 군부대에 찾아가 주말 법회 끝,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는 일은 가장 인기 있는 회향이다. 이렇게 내가 가진 것들을 조금씩 나누어 주다 보면 사람은 가질 때도 행복을 느끼지만 나누어 줄 때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기도 전에 불행하고 삶이 힘들다고 느꼈던 사람들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보면서 변화하고, 만족할 줄 아는 법, 나누는 법을 배운다.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셔서인지 온사스님은 이 기도를 아직도 열심히 하고 계신다. 그럴 때마다 법정 스님의 수행자는 기도로써 영혼의 양식을 삼는다는 글이 생각난다. 기도는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간절한 소망이라는 글……. 기도를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셨기에 초심자인 상좌들보다도 불사, 기도, 수행까지 모든 일들에 더 적극적이시다. 특히 우리들을 더 놀랍게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도 늘 같은 자세와 마음으로 대하시는 것이다. 보통 찾아오는 사람들은 즐거운 일보다 힘들고 아픈 일들이 많다. 그런데 피곤한 기색 없이 공감하려고 노력하시며 들으신다.

이렇게 사람들이 편안해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참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도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것이리라. 이번 나의 참법기도는 참 부끄러웠다. 오래하여, 또 많이 읽어 잘은 하지만 어느새 간절함이 많이 사라져 있었던 나를 보았다. 기도에 간절함이 없다면 이것은 영혼의 양식이 되지 않을 것이다. 기도가 하루를 여는 아침의 열쇠이고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의 빗장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반성하고 다시 시작해야겠다. 내 수행의 양식이 바닥나지 않도록 말이다.

아마 지금 아무 탈 없이 화엄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도 아마 온사스님의 기도 덕분이지 싶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수행의 양식을 인연지어 주신 스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

대중

제준 / 사교과

안녕하십니까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 대중이란 주제로 차례법문을 하게 된 사교반 제준입니다. 우리는 지금 강원이란 대중 속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수행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동체생활을 하였고, 대중 화합을 위해 여러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중 육화경의 가르침은 강원생활에서도 익히면 좋을 것 같아, 먼저 육화경의 가르침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육화경』은 불교의 진리를 깨치고자 수행하는 사람들이 서로 공경하며 화합하여 깨달음을 성취해야 하는 여섯 가지 도리를 말합니다.

첫째, 몸으로 부처님 행을 하여 화합하고
둘째, 입으로 부처님 말을 하여 화합하고
셋째, 뜻으로 부처님과 같은 생각을 하여 화합하고
넷째, 계율을 서로 지켜 바른 행동을 하여 화합하고
다섯째, 바른 견해를 가져 화합하고
여섯째, 이양을 받음에 균등히 하여 화합하라
는 뜻입니다.

이렇게 육화경의 가르침을 요약해보면 우리가 짓는 삼업의 근본인 신구의를 잘 단속하여 조화롭고 상호 공경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계율이 지켜지고 진리를 바라보는 견해가 하나 되며 마침내 수행을 통해 열반적정의 기쁨과 이익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육화경의 가르침처럼 대중에 수순하고 화합한다면 대중만큼 훌륭한 수행처도 없습니다. 규

칙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게으름이 없어지고 대중이 서로서로 보호자가 되어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줍니다. 특히 초심자에겐 수행의 울타리가 되어 주는 것 같습니다. 마음 하나 돌려 대중에 수순하다보면 궁정적인 나의 모습을 자꾸 끌어올리게 되고 이 대중에서 대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행자시절 가장 많이 듣던 얘기가 있습니다.

“행자님 같이 하세요.” 혼자서 뭐든지 하려던 저는 늘 상반스님들의 걱정을 들었습니다.

혼자 하면 일이 빨리 끝날 것 같고 누군가를 배려해가면서 같이 일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던 저는 대중의 의미를 그저 많은 스님들이 함께 사는 것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강원에서 대중생활을 보내며 사람들과 부딪쳐보기도 하고 때론 누군가의 배려를 받을 땐 감사함을 배우며, 점차 대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강원생활을 통해 많이 밟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유해졌음을 느낌니다.

매일 예불을 모시고 발우공양을 하고 경을 읽고 울력을 하고 반복된 일상이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런 일상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중물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 앞에 나서는 부끄러움. 새로운 사람들과 또다시 만들어질 인연의 고리들… 출가하기 전 많은 고민들 속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행자시절 대중 앞에서 석차례조차 못해 상반스님한테 큰 걱정을 듣고 하루 종일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저 대중 앞에 나선다는 자체가 두렵고 그런 걸 고민하는 제가 한심스러워 출가의 뜻을 저버리고 싶었던 순간들도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대중스님들 앞에서 법문을 하고 있으니, 강원에서 보낸 시간들이 헛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겨울 방학 때 노스님 시봉 소임을 잠시 살았습니다. 평생을 대중에서 보낸 노스님은 아침저녁 꼭 108배를 하시며 새벽예불을 모시고 발우공양 전, 꼭 1시간가량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 자신이 부끄럽고 노스님께 감사했습니다. 노스님께서 평생을 대중 속에서 계실 수 있었던 건, 스스로를 단속하고 지키신 힘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대중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건, 어른스님들께서 건강하신 몸으로 대중을 지켜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대중이 있는 강원에서 철저히 대중생활을 익히고 제대로 하심하는 법을 배워 대중 그 자체가 내가 된다면 수행자로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도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운문사 도량을 지켜주시는 어른스님들께 감사드리며 저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



『緇門』에 나타난 불교 수용 양상 ②

동우 / 사집파

목 차

I 서론

II 본론

1. 삼교三敎 회통
2. 격의불교格義佛教
 - 1) 중국 불교와 도가
 - 2) 중국 불교와 유교
3. 선종의 개화

III 결론

2) 중국 불교와 유교儒敎

중국의 유교는 정치, 윤리, 경제, 문학, 교육, 사회적으로 뿌리 깊게 박힌 中華意識을 대표하는 전통 사상이다. 유교의 대표적인 사상인 王常의 仁, 義, 禮, 智, 信은 심신을 수양하며, 행동을 신중히 하는 것 등으로 삶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혼란 속에서 유교와 도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개종하거나 승려가 된 학자들도 많았다. 이들 대부분은 초기에 유교 교육을 받고, 노장사상에 심취하여 개인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심오한 진리를 찾아 나섰으며 유가, 노장 뿐만 아니라 내외전에 능통하고 문장이나 시문에도 능통한 공통점이 있다.²⁷⁾ “도는 지혜로운 자를 위해 설명된 것이고 변론은 통달한 사람에 의해 넓혀진다. 글은 깨달은 사람에 의해 전해지고, 일은 견식이 있는 사람에 의해 명백해진다. 나는 그대가 그 뜻 『詩經』과 『書經』의 뜻을 알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일을 인용한 것이다.²⁸⁾”라는 변론서를 짜기도 하는 등 유교의 경서를 통하여 불교를 이해시키려 노력하였다. 다음의 문장은 宋代에 지어진 것으로 비록 격의불교가 성행하던 시기에 쓰여진 문장은 아니지만, 유가의 용어나 경전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면 전통 사상인 유가가 격의 시대를 지나서도 지속적으로 불교를 설명하는 데 한 방면으로 이용되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仁遠乎哉아 我欲仁이면 斯仁이 至矣라하니

言求之而必得也시느라.

인이 멀리 있느냐 내가 어질고자 하면

그인이 이를 것이라 하니

그것을 구하면 반드시 얻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느라.²⁹⁾

■ 三人이 行에 擇其善者而從之則是는 學於前行也요.

세 사람이 길을 감에 그 착한 자를 가려서 품으면 곧 이것은 동행자에게 배우는 것이요.³⁰⁾

■ 玉不琢이면 不成器요 人不學이면 不知道니

라…組織仁義하고 琢磨道德하며
혹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못함이요 사
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하니라…인
의로 조직하고 도덕으로 턱마하며³¹⁾

격의불교시대에 불교의 윤리 도덕의 관념으로
이해되었던 ‘五戒’는 유교의 ‘五常’으로 이해하려
고 노력하였고,³²⁾ ‘中道’는 ‘中庸’³³⁾과 유사성을 찾
으려 하였다. 『中庸』은 유교의 대표적인 경서이다.
유가에서 말하는 ‘중용’은 사물을 보는 시선과 문
제를 처리하는 데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도 가치 있
는 다른 면을 보고자 노력하고, 반대로 긍정적인 평
가를 할 때도 부족한 점이나 약점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처리방식이 ‘正道’를 지키며 가
는 것이라 여겼다.³⁴⁾

心想若滅하면 生死長絕이니라 不生不死하고 無
相無名이라 一道虛寂하야 萬物齊平이면

何勝何劣이며 何重何輕이며 何貴何賤이며 何辱
何榮이오

심상이 만약 멀하면 생사가 길이 끊어지는지라.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느
니라. 一道가 덩 비어 고요해야 만물이 가지런히 평
등하면 무엇이 수승하고 무엇이 하열하며 무엇을 소

중히 여기고 무엇을 가볍게 여길 것이며 무엇이 귀
하고 무엇이 천하며 무엇이 육되고 무엇이 영예로운
것이리오.³⁵⁾

위의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불교의 ‘중도’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庸의 유기적 도리와 비슷
해 보이지만, ‘극단 자체를 세우지 않는 것’에 있음
을 유의해야 한다. 즉 ‘중도’란 극단을 초월한 원융
회통圓融會通의 사상이라 할 수 있다. 백가쟁명 시
기³⁶⁾를 지나고, 유교는 불경이 魏晉으로부터 唐에
이르기까지의 약 700년간(220~907) 불교와 노장사
상에 의해 침체되어 부진하였다. 그러나 宋代에 신
유학이라 불리는 새로운 사조가 나타났고, 유교 학
자들은 상당수 불교의 중요한 개념들을 자기화하여
형성하고 구체화시켰다.³⁷⁾

3. 禪宗의 개화

남북조 시대부터 발전해 온 불교는 왕실과 귀족
들의 귀의를 받아 번영하였다. 따라서 중국 역대 왕
권이 그려했듯 불교 역시 국가의 보호 아래서 통치
이념으로 채택되기도 하였고, 사원 경제의 보호 및
의발전수제도 둥도 성립되었다. 이렇게 불교는 隋,

27) 아서라이트, 「중국사와 불교」, 신서원, 1994, pp.73~74 참조

28) 계환스님, 「충명집」의 「모자이축론」, 동국역경원, 2008, p.71

29) 「치문」의 「孤山圓法師勉學下」〈勉學〉편 p.60

30) 「치문」의 「孤山圓法師勉學上」〈勉學〉편 p.55

31) 「치문」의 「姑蘇景德寺雲法師務學十門」〈勉學〉편 p.61 · p.74

32) 五戒와 五常은 不殺生·仁, 不偷盜·義, 不邪淫·禮, 不妄語·信, 不飲酒·智로 배대된다.

33) 『中庸』의 작자는 자사(子思, BC 483~402)로 공자의 손자이다. 유교사상에 있어서 중용이란 현실에 적용되는 行道의 최선의 길을 뜻
하며, 형이상학적인 개념에서 출발하여 가치론적인 수양방법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핵심사상이라 할 수 있다.

34) 천파평, 「한권으로 읽는 유교」, 산책자, 2008, p.53 참조

35) 「치문」의 「周渭濱沙門亡名法師息心銘」〈銘銘〉편 p.109

36) 백가쟁명시기百家爭鳴時期(BC 550~110)는 儒家, 隱陽家, 墨家, 法家, 名家, 繼橫家, 農家, 兵家, 數術家, 雜家, 方技家의 11개 사상 유파들
이 발생하여 활약한 시기이다.

37) 아서라이트, 「중국사와 불교」, 신서원, 1994, pp.110~113 참조

唐代에 이르러 불교의 황금시대라는 전성기를 맞았으며 法相宗, 律宗, 淨土宗, 華嚴宗, 禪宗 등이 갖는 독특한 종교 이론과 규범 및 제도 등은 중국 불교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교가 귀족화되자 異敎徒들의 문제 제기 대상이 되어 이론만을 주장하는 종파보다 실천적 종교이자 누구나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선종이 가장 영향력 있는 종파로 발전하게 되었다.³⁸⁾ 양무제 때 중국에 대승선법을 전한 보리달마³⁹⁾는 이입理入과 사행四行⁴⁰⁾의 가르침을 설파하여 대승불교의 선법을 전하였다.

禪法濫觴이 自於秦世에 僧敎法師가 序關中出禪經하나…菩提達磨祖師가 觀此土之根緣하시고 對一期之繁縝하사 而宣言曰不立文字는 道其孰文滯迹也리요 直指人心은 明其頓了無生也라하시니

선법의 기원은 진나라 때 송예법사가 관중에서 나온 선경에 서문을 쓴 데에서 시작하였으며… 보리달마조사가 이 땅의 근기와 인연을 관하시고 그 당시 번잡한 행태를 대하여 이에 이르기를 ‘불립문자는 문자에 집착하고 자취에 막히는 것을 보내버리는 것이요 직지인심은 그 무생법인을 단박에 요달해 밖히는 것이라’ 하시니⁴¹⁾

‘교외별전敎外別傳’, ‘이심전심以心傳心’,

‘불립문자不立文字’,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 성불見性成佛’의 용어는 선종을 대표하는 숙어들이다. 다른 종파처럼 경전과 문자 언어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풍부하고 구체적인 비유와 유추, 역설적인 표현을 한다.⁴²⁾ 이것은 직접 대면함에 있어서 아예 초절적, 직관적 대화 방식으로 전개된다.

선법은 사상적으로 돈頓과 점漸이라는 개념으로 대립된다. ‘돈頓’은 개별성에 대치되는 전체성, 그리고 순간적이면서도 완벽한 깨우침을 통해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는 방법이었다. 반면 ‘점漸’이란 분석과 개별사례의 축적 및 장기간의 수행을 통해 궁극적인 진리에 도달하는 접근 방법이다. 이것은 지식과 지혜의 완만한 축적을 강조하는 측면이 전통 유가 사상과 유사하다. 더 나아가 돈오적 깨달음은 선종, 점수적 깨달음은 교종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다.⁴³⁾ 선종과 교종은 생활 종교인 조사선으로 발전하며 그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다.

曰先生之論은 相宗也요 吾祖之論은 禪宗也니 凡與吾選者는 心空而已矣라. 弟子가 造堂而有問 куд는 宗師가 瞻座而有答호대 … 或揚眉瞬目하며 或舉拂敲床하며 或畫圓相하며 或劃一劃하며 或拍掌하며 或作舞어든 契吾機者는 知其心之空也니 知其心之空則佛果를 可以選矣리다.

38) 겸전무옹(정순일譯), 「중국불교사」, 경서원, 1996, p.참조

39) 달마(達摩 ?~536) : 남북조시대의 선승. 선종의 창시자이다. Bodhi-dharma이며 보리달마菩提達摩로 음사하는데, 달마는 약칭이다. 대승불교 승려가 되어 선에 통달했다. 양무제 때 중국에 들어와 선법을 전했고, 도황에서 출토된 자료에 따르면 四券으로 된 『標伽經』을 종시하였다. 달마는 이입사행二入四行의 가르침을 설파, 좌선을 통한 새로운 실천불교를 강조하였다. 「중국역대불교인명사전」 p.43

40) 이입사행론二入四行論 : 理入은 원리적인 방법으로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순수한 성품을 확신하고 수행하는 것이며, 四行은 보원 賴忍行, 수연隨緣行, 무소구無所求行, 칭법稱法行을 말한다.

41) 「치문」의 「傳禪觀法」〈禪文〉편 pp.188~189

42) 모리미키사부로, 「중국사상사」, 온누리, 1986, p. 225 참조

43) 다음은 「치문」의 「孤山圓法師示學徒」〈遣戒〉편에 나타난 禪宗과 教宗의 대립양상을 보이는 내용이다.

苟達之而不見彼此하면 應當互相成濟하야 共熟擬緣하리니 猶萬派朝宗에 無非剎海며 百官이 慢事에 咸曰勤王이라 未見護一派而塞衆流하며 守一官而欲廢庶績거라 – 진실로 그곳에 도달하면 教다 禪이다 나누어 보지 않으며, 미땅히 서로 구제하여 함께 근기와 인연을 성숙시키야 하리니 미치 온갖 물줄기가 朝宗함에 바다에 도달하지 않음이 없으며, 백관이 일을 맡음에 모두 王의 일에 충실했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한 물줄기를 지키려고 여러 흐름을 막으려 한다거나 하나의 관직을 지키려고 많은 벼슬을 폐지하려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한다.(문장에서 朝宗은 봄에 천자를 알현하려가는 것을 朝라 하고, 여름에 알현하는 것을 宗이라 하니, 선과 교를 융합하여 불법의 바다에 모이는 것을 비유로 들어 설명한 것이다.)

선생의 논지는 상종相宗이요, 우리 조사祖師의 논지는 선종이니 무릇 나와 더불어 가려낼 것은 마음이 공한 것뿐입니다. 제자가 堂에 나아가 물음에 종사가 자리에 걸터앉아 대답하되 … 혹 눈썹을 치켜들고 눈을 깜짝거리기도 하며, 혹 불자를 들어 법상을 치기도 하고, 혹 일원상을 그리기도 하고, 혹 한 획을 긋기도 하며, 혹 손바닥을 치기도 하고, 혹 춤을 추기도 하거든 나와 근기가 계합하는 자는 그 마음이 공한 것을 아는 것이니 그 마음이 공한 줄을 안다면 곧 불과를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⁴⁴⁾

문장의 내용은 선사들이 법좌에서 '도'를 설하는 방식과 모습인데, 이것은 중국적 불교인 선종만이 갖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당의 황금불교시대에 꽂피운 선종은 송대를 기점으로 급속히 쇠훈하지만, 당대 말부터 청조까지 일천년간 정토종과 함께 중국 불교를 대표하는 종파로 남게 되었다.

III 결 론

지금까지 「치문」을 통해 중국의 전통사상과 어떻게 접촉, 대립하고 또 융화하여 중국적인 불교로 재탄생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을 검토해 보았다.

중국인들은 격의불교를 통해 유교나 도가의 노장사상에서 발견하지 못한 인생과 세계를 광대하고도 심오한 차원에서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승려뿐 아니라 거사, 君臣, 재가 지식층들, 일반인의 문장이 적지 않게 수록된 것을 보면 불교는 신분을 초월하여 모두 개인적으로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장점이 되었던 것 같다. 인도불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종파불교의 발전과 더불어 실천적 종교로써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선종

의 개화는 동아시아 불교 문화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치문」에 수록된 대부분의 문장은 唐·宋代에 지어진 것으로, 이미 격의불교를 지나 완전한 중국적 불교로 정착한 이후이다. 그러나 불교가 지속적으로 유교, 도교와 더불어 발전하였고 또 선종으로 개화한 것을 보면, 시대적 배경과 상관없이 많은 문장들에 삼교의 사상이 조금씩은 다 습합되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신유학이 등장한 宋代의 頌古文學의 문장을 보면 더욱 그런 경향이 짙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치문」에는 불교가 전래된 초창기의 모습, 중국불교사의 끊임없는 선종의 발달사뿐만 아니라 총림의 성립, 승가의 조직, 역할에 관한 내용도 풍부하다. 이는 중국 불교사의 이해를 통해 「치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더 깊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더불어 본고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했지만 말세의 승가와 총림, 승려에 대한 경책의 내용이 이미 일천년 전부터 기록되어 온 것은 21세기의 승가에서 다시 한번 깊이 재고해 보아야 하는 중요한 의의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이종철,『중국 불경의 탄생』, 창비, 2008
- K.S.케네스챈,『중국인의 삶과 불교의 변용』, 씨·아이·알, 2012
- 이효걸,『불교수용기의 역사적 상황과 수용의 문제』, 중국철학회 논문, 1991
- 오진탁,『중국 불교와 장자사상의 결합방식』, 중국철학회 논문, 2001

* 그 밖의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합니다.

44) 「치문」의 「洪州寶峯禪院選佛堂記」(記文)편 p.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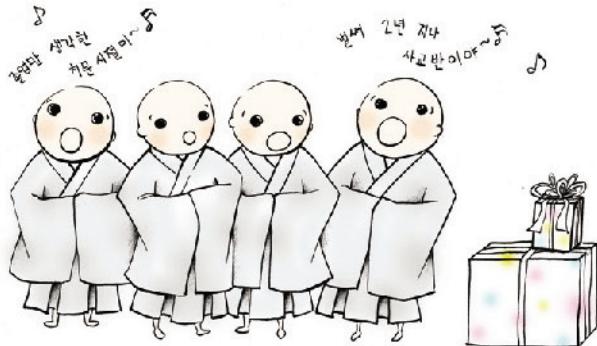
다시, 시작할 당신에게

보건/사교과

덥고 습한 운문사의 여름철이 시작되었다. 승복을 입고 이 더운 여름철을 지내자면 땀을 비 오듯 흘리며 온 도량을 다닌다. 더운 만큼 똑같은 울력을 해도 더 힘이 드는 지금, 추웠던 작년 겨울철을 생각해 보면서 시원해지고 싶다.

2013년 사집 겨울. 힘들어 하는 치문반 스님들과 어떻게 재미있게 육놀이를 할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인가? 고민하다 인간 육놀이와 닭싸움 게임, 그리고 치문반 스님들을 위한 공연으로 노래 개사해서 부르기와 수중발레를 하기로 했었다. 육놀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던 우리는 “치문은 재미없는데 우리만 재밌는 거 아니야? 우리 너무 즐기는 것 같아.”라는 말까지 했었다. 드디어 육놀이 하는 날! 우리가 준비했던 노래와 수중발레를 할 때 치문반 스님들의 웃음소리에 뿌듯함을 느꼈다. 특히! 수중발레. 수중발레는 백씨와 중씨 측 스님 중심으로 구성되어 호응도 무척 좋았다. 의상부터 표정까지 디테일하게 준비했던 만큼 웃느라 눈물까지 날 정도였다. 사진이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만약 사진이 있었다면 약간 부끄러웠을지도…? 노래는 박기영의 '시작'이라는 노래를 가사만 개사해서 불렀다. 드디어 인간 육놀이!! 눈을 가리고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다가 노래가 멈추면 넘어지는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우리 반 막내스님이 제일 잘했다. 치문 때부터 춤에 있어 두각을 나타내는 우리 막내스님 부끄러워하면서도 얼마나 잘 추는지……, 그런 막내스님이 이번엔 치문 때의 부끄러움을 벗어나서 다소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춤사위로 우리를 놀래켰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반의 패. 게임이 끝난 후 마지막 순서는 케이크와 함께 우리가 치문반 스님들에게 쓴 편지 낭송하기였다. 문득 작년 이맘때쯤 우리가 치문반일 때, 당시 작은 부전 스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읽어주며 눈물샘을 자극했던, 그 기억이 떠올랐다. 우리도 눈물샘을 자극하고 싶었지만! 내가 너무 덤덤하게 읽었던지 우는 스님은 없었던 것 같다. 육놀이의 하이라이트는 치문반 대신 다음날 아침 설거지, 밥상 차리기, 오백미 올리기를 해 주는 것이었다. 작년 우리가 받았던 그대로 사집이 된 우리도 치문반 소임을 한 번 해주는 아름다운 품앗이 놀이. 난 종무소 하시자여서 같이 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그려지는 우리 반 모습. 육놀이가 끝난 후, 서둘러 안 종두, 바깥 종두, 설거지 팀, 오백미 팀을 모집하며 즐거워했으리라. 그리고 치문반 시절을 추억하면서 기쁘게 일했으리라. 그때 불렀던 노래 가사를 적어본다.



오직 졸업만 생각한 치문시절이
 벌써 2년 지나 사교반이야
 치문시절 많은 습의, 울력, 걱정자리가
 우릴 더욱 힘들게 했지
 치문 본 순간. 나는 느꼈어
 우리가 느끼던 감정을 느낄 거란 걸
 난 네게 말하고 싶어
 좀! 인욕하면 된다고
 새로운 치문 곧! 들어온다고
 어떡해야 내 마음을 알겠니
 사집 되면 알 거라는 걸

치문반 스님들이 마음을 다잡고 운문사에서 열심히 살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개사하고 불렀었다. 해가 지난 지금 새로운 신입생이 들어왔고, 당시 치문이던 그들도 언제나 치문은 아니듯, 어느새 두 번째 철을 맞는 어엿한 사집반이 되었으며 우린 사교반이 되었다. 강원에서의 하루는 짧은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참 같다. 새벽에 눈을 떠 예불을 가고 하루 종일 각자의 소임에 맞춰 움직이다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쉼 없이 움직이는 그 순간들이 참 빨리 지나가다가도 누군가에게 듣는 걱정으로 혹은 어떤 상황으로 부대끼다 보면, 그 하루에 돌이키지 않고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있다. 바로 이때, 이 순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누군가는 떠나갔고, 이런 순간, 더 한 힘듦에도 받아들여 일관한 역대 선배들 그리고 이렇게 운문사에서 공존하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도 운문사 대중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공손히 대중으로서 합장하며 인사를 나누면 우리가 언제까지나 함께 했으면 좋겠다. 모두들 나름대로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각자의 힘듦은 다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지 않을까.

특히 사집, 그리고 치문반 스님들에게 말하고 싶다. 인내하면 곧 사교반이 되고 졸업반이 될 거라고. 그렇게 덤덤히 지내는 시간 속, 우리는 어느새 스님다운 스님으로 서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이 사실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다. ●

밭에서의 깨달음

선경 / 사집파

마냥 치문으로 지낼 것만 같던 제가 어느덧 치문을 벗어나 사집이 되었습니다.

사집이 되고 나서도 첫 철이 지나간 이 시점 어느덧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치문이 끝나고 나면 마냥 편할 것만 같던 생활……. 치문 때 바라보던 상반스님들의 생활은 왜 그렇게 더 나아보이는지…….

하지만 제가 사집이 되고 나니 그 생각을 하던 저는 후회를 했습니다. 오히려 상반스님들이 더 힘들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상반스님들께 참회(?) 아닌 참회를 속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치문 때는 마냥 좋아보이던 상반스님들이 제가 사집이 되고 나니……. 오히려 사집이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 나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풀을 뽑고 대중들 먹을거리를 뜯고 캐고……. 처음에는 밭으로 나간다는 설렘과 밭에 가서의 즐거움에 기대감이 꽂 차 있었습니다.

사집이 되고 처음으로 나가는 밭!…… 웬걸요, 처음 하는 울력이 밭갈이라니…….

나는 씨를 뿌리고……. 무엇인가를 수확하는 걸 기대했었는데 밭갈이 울력이라는 말에 뭔가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하지만 처음 한 밭갈이 울력은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도반스님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아 나도 이제 대중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구나.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라는 생각에 더욱더 즐거웠습니다.

밭을 다 갈고 씨를 뿌리는데도 이건 무슨 씨, 이건 무슨 씨, 씨를 뿌리고 나서 한참 뒤 자라는 새싹을 보며, ‘와 우리 반이 뿌린 씨가 저렇게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며 한없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럴수록 점점 기다려지는 밭에 나가는 시간이지만 가면 갈수록 치문겨울 방학 때 남는 반이라서 그런지 체력이 점점 고갈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잠깐의 참 시간도 없이 어김없이 들리는 반장스님이 외치는 소리 ‘밭으로 가야 돼요. 토시 끼고 밭으로 가요.’라는 그 소리가 들려오면 저는 ‘또 밭에 가요?’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 지경이었으니까요. 항상 쑥과 질경이 기타 등등…… 쑥만 뜯어서인지 지겹다는 생각도 나오고 지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시작한 두릅 따기와 가죽, 엄나무, 제피 따기는 집에서도 해왔던 것이지만 웬지 모를 새로운 감에 다시 즐거움이 찾아왔습니다. 따온 두릅과 엄나무 기타 등등 나물들이 발우상과 후원식당에 반찬으로 나왔을 때는 웬지 모를 뿌듯함과 ‘대중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과 '아 이걸 나와 우리 도반들이 했구나.'라는 기쁜 마음이 함께 교차했습니다. 그 생각과 함께 내가 힘들면 우리 도반스님들도 같이 힘들고 지친다는 생각에 더욱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학이 가까워질 무렵 저희 반이 열심히 심어놓은 감자들에 짹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짬이 올라오면 비닐을 좀 더 벌려줬어야 했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아니 놓쳤다라기보다는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짹이 나온 것들은 노랗고 짓무르기도 하고 아직 나오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짹이 나오지 못한 것들은 너무 깊게 심어서 속에서 쪽어버렸더군요. 감자에게 많이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 먹을거리가 없어진다는 생각에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한 건데 이렇게 짹고 짓무르다니 가운데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은 감자들을 보면 '너희들한테 고맙다. 이렇게라도 살아줘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감자들도 살아남기 위해 끈질기게 올라오는데 나는 여태껏 조금만 아파도 눕고 힘들다고 도반스님들을 뇌롭게 했던 내가 정말 무었을 했는지…

감자를 보며 새삼스레 다시 참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경전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기 위해 여기에 왔는데 나는 여태껏 뭐한 거지? 저기 햇빛을 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새싹들처럼 노력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있나? 만날 헛된 생각만 하고 이리저리 피할 생각만 하고 헛된 것들에 집착만 한 나는 뭐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자들과 파랗게 빠죽빠죽 올라오는 새싹들을 보면서 새암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싹들과 감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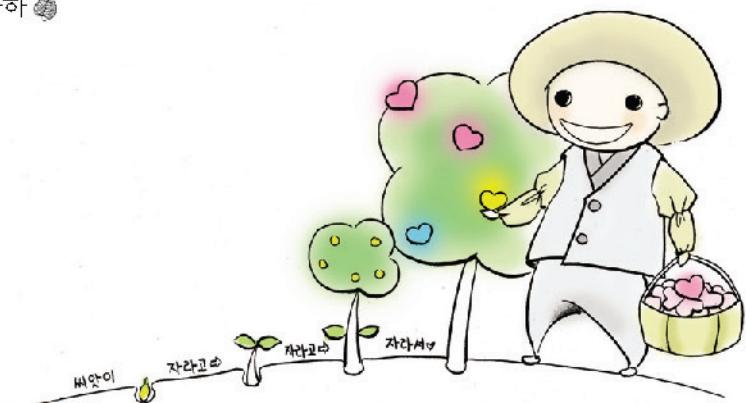
'감자들아 새싹들아 고맙다. 너희들이 있어서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어가는구나.'

너희들이 있기에 우리 대중들이 음식을 먹고 나도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어가는 고마운 곡식과 나물들 하루하루 자라나는 것을 보며 대중들에게 무언가를 해 줄 수 있다는 뿐듯함.

다시 한번 감자들과 지금 무럭무럭 크고 있을 새싹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곡식들이 무럭무럭 자라라는 뜻의 진언을 외우며 글을 마칩니다.

옴 아미라 겸제이니 사비하
옴 아미라 겸제이니 사비하
옴 아미라 겸제이니 사비하 ●



비구니의 좌충우돌 치문기

혜성 / 사미니파

어느덧 장미의 계절 6월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은 제주도로 사미니는 운문사로”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강원을 다닌다면 큰 대중에 가야 한다는 온사스님과 여러 스님의 열화와 같은 자론하에 운문사에 입방을 하게 된 치문반 혜성입니다. 운문사는 비구니 강원 중에서 S대라고 말을 하더군요. 옛날 저희 온사스님 다닐 때는 운문사는 S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농대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이제 학인이 많이 줄어서 농사일도 줄고 울력도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울력이 많은 규율이 많은 운문사는 여전히 여느 강원보다 best of the best입니다. 학인수도 많고, 강사스님도 많은 운문사 도량에서 공부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아침예불 갈 때마다 가슴 벽찬 환희심을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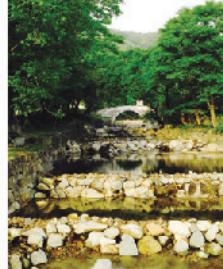
강원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무수한 규율과 방대한 생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많은 규율을 메모하는 것을 무한반복 해야 합니다. 이것이 습의가 안 되면 걱정사항이 되어 발로참회와 조행표에도 줄이 그어집니다. 도량내에 천연안구 cctv가 표정 하나 우리의 손짓 하나 몸짓 하나 모든 행동을 스캔을 하기 때문에 항상 정신을 들고 살아야 합니다. 춤음을 쪼개고 쪼개서 하루 일과를 보내면 몸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입방 전 불면증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이 거대한 단체생활 덕분에 불면증이 없어졌습니다. 대방에서 이렇게 많은 대중과 함께 자는 것이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머리를 서로 맞대어 자고, 요와 요사이에는 한 치의 간격도 없이 자는 것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등을 바닥에 눌힐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큰 복이랍니다. 온사스님 다닐 때는 120명 넘게 잤기 때문에 칼잠을 잤다합니다. 그러나 이젠 누웠다 하면 목탁의 모닝콜 소리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치문 생활을 하면서 남자들의 병역생활만큼이나 전우에 같은 끈끈한 정을 느꼈습니다. 우리 반은 막내스님과 백씨스님까지 부모와 자식 간의 나이 차이가 나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백씨스님들이 앞에서 당기면 막내스님들이 뒤에서 밀어주고 우리 반 스님들 모두 나오 없이 잘 살 것입니다. 봄철 종두소임 맡으면서 더 정신없이 보낸 것 같습니다. 급한 성격 탓에 몸 따로 머리 따로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마음은 급하고 입은 안 떨어지고 더듬더듬 거렸습니다. 지나고 보니 별 어려운 것도 아닌데 처음에는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공양간 불사가 완성된 이후



올해부터 찬상 공양이 없어져서 많이 수월해졌다는 데도 말입니다. 봄철 소임도 끝나고 나니 자유를 찾은 것 같이 좋았는데 지나고 보니 종두소임 살 때가 참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원 도우미 나가는 것도 공양물 나르는 것도 모든 것이 강원생활에서 아주 큰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생활 이야기 아니면 할 말 없듯이 스님들도 강원생활 이야기 아니면 할 이야기 없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생활이 어떤 것인지 느껴 보고 싶어 뒤늦게 방부 들인 만큼 강원생활에서 추억을 많이 쌓으려고 합니다. 지나갈 것 같지 않은 치문 첫 철 그렇게 치열하게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쉴 새 없이 짜인 하루일과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사집, 사교, 화엄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꿈꾸며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열심히 살 것입니다. 새벽예불을 갈 때 대웅전 향하는 한걸음 한걸음이 너무나 가슴 벅차고 환희심을 느낍니다. 내가 이 자리에 함께한다는 것이 무한한 행복이었습니다. 언제 이 많은 대중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살아보겠습니까? 이 강원 생활은 서로 탁마하여 함께 성숙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힘들 때 자기보다 도반을 더 챙겨주는 우리 반 스님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히 막내스님들은 나이에 비해 너무나 어른스러워 우리 반의 앤돌핀입니다. 치문 여름철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치문반 지금 이대로 졸업하는 그날까지 원만 회향하길 매일 부처님 전에 기도드립니다. 운문사 시험 치러 온 날 입승스님이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운문사는 배우고 익혀 갈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모든 걸 배우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걸 배우고 많이 익혀서 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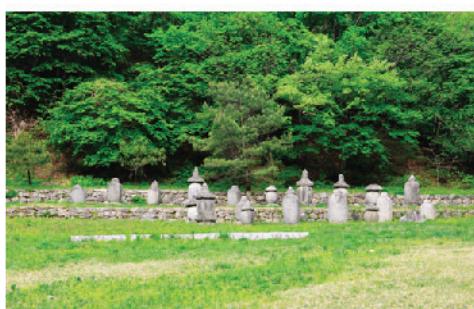
자경문에 나오는 ‘삼일수심三日修心은 천재보千載寶요, 백년탐물百年食物은 일조진一朝塵’, 즉 ‘3일간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이고, 백년을 탐하여 모은 재산은 하루아침에 먼지가 된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구입니다. 운문사에서 4년 동안 마음 잘 닦고 닦아 천년의 보배가 될 수 있도록 수행정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



건봉사의 천년 역사

유정 / 대교파

한국불교의 역사적 순간에 언제나 이름을 함께했던 천년 고찰 금강산 건봉사. 친란했던 역사도, 고단했던 시간도, 이제는 모두 지나가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 한껏 움츠리고 있었다. 머지않아 훗날 친란했던 건봉사의 위상이 다시 재현되길 발원해 본다.



고속도로와 구불구불한 국도, 몇 개의 고개를 넘었는지도 모른다. 지루할 만도 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강원도의 절경이 내 마음의 지루함을 몰아내고 신선함을 안겨 주었기에 괜찮았다. 깨아지른 듯한 절벽과 푸르른 녹음, 출렁이는 동해 바다의 바깥 풍경에 한참이고 취해 있을 때, 끝이 없을 것 같았던 그 길 끝에서 건봉사를 만날 수 있었다.

강원도 최북단 고성군에 있는 금강산 건봉사는 금강산의 줄기가 시작되는 건봉산 감로봉 동남쪽 자락에 위치해 있다. 건봉사는 신라 법흥왕 7년 아도화상이 창건한 천년 고찰로 처음에는 ‘원각사’라 불리었으나 고려 태조의 스승인 도선 국사가 왕명으로 원각사를 중수했으며 사찰 서쪽에 봉황 모양의 바위가 있어 이름을 ‘서봉사’로 바꾸었다. 그리고 1358년 나옹 스님이 중건하여 ‘건봉사’로 개칭되었다. 일제 강점기에도 양양 낙산사, 설악산 신흥사와 백담사를 말사로 거느린 전국 4대 사찰 중의 하나였지만, 민족의 비극인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전소되면서 지금은 친란했던 그 시절의 기억만 머금은 채 옛 절터만 남아 있다.

사찰 입구에 들어서니 ‘불이문不二門’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다. 사찰의 건물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전쟁 때 불타지 않았는데, 다른 곳의 불이문과는 달리 기둥이 4개이다. 돌기둥에는 금강저가 음각되어 있어 천왕문을 건립하지 않아도 사찰을 수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지금은 평화로이 사찰의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지만 돌기둥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총흔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치열했던 한국전쟁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不二門’. 사찰을 들어서기 전부터 기슴이 아렸던 건, 비록 내가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 혐난한 여성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받아들어야만 했던 건봉사의 슬픈 역사적 현실이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일 것이다.

불이문不二門을 따라 개울을 걷다보면 길이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위로 계속 올라가면 적멸보궁으로 이어지고, 오른쪽 농파교를 건너면 대웅전이다. 농파교는 보물 제1336호로, 무지개 모양의 다리인 ‘홍교’이다. 농파교 위에서 아래의 개울물을 내려다보았다. 개울물은 북에서 남으로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 이 땅에서는 오직 인간만이 남과 북을 나누고 담을 쌓으며 철조망을 치고 있었다.

농파교를 지나면 봉서루 입구에서 십바라밀 석주를 만날 수 있다. 등근달은 보시바라밀, 반달과 별은 지계바라밀. 신달은 인욕바라밀, 가위는 정진바라밀, 구름은 선정바라밀, 금강저는 지혜바라밀, 좌우 쌍 우물은 방편바라밀, 위아래 쌍 우물은 원바라밀, 고리루퇴는 역바라밀, 성중원월은 지바라밀을 의미한다. 두 개의 돌기둥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십바라밀을 하나하나 눈에 새기면서, 이를 하나하나 닦아 나아가는 수행자가 되기를 발원해 본다.

신라 경덕왕 17(758)년에 발징 화상이 중건하고 정신, 양순 스님이 1만일 동안 염불을 외우면서 염불만일회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만일은 헛수로 30여 년의 시간이다. 결코 짧지 않은, 우리 생의 반이나 차지하는 긴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일 동안 염불을 외웠던 그 시대의 신심에 순간 가슴이

뭉클하였다. 그리고 그 신심을 증명이라도 하듯 건봉사에서는 다른 절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동공대’가 있었다. 동공대는 787년 염불만일회에 참여했던 31인이 아미타불의 가폐를 입어서 극락에 왕생하였고, 그 뒤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차례로 왕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탑이다. 비록 군사통제 지역에 있어 사전에 예약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직접 동공대로 올라가지 못했지만 멀리서나마 해탈에 이르기 위해 쉬지 않고 정진하셨던 선지식들에게 합장하며, 다시 한번 내 수행의 살림살이를 되돌아보았다.

신라 때 자장 울사가 당나라에서 가져온 석가모니 부처님의 치아사리는 본래 통도사에 있다가 임진왜란 중 일본이 강탈한 것을 사명 대사가 일본으로 건너가 돌려받아 건봉사에 봉안하였다. 8과의 치아사리 중 3과는 사리탑에 모셔져 있고, 5과는 만일염불원에서 직접 친견할 수 있다. 삼천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불법이 이 땅에 존재하며 부처님의 사리를 친견할 수 있는 적멸보궁으로 긴 여성에 친 피로를 잊기에 충분했다.

나지막한 담장 안으로 고르게 세워져 있는 부도탑들은 옛 건봉사의 위상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다. 임진왜란 때 6000여 명의 의승병을 일으킨 호국의 장소로서의 건봉사. 건봉사 앞 넷가 가 쌀뜨물로 하얗게 뒤덮였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그 시절 대가람의 규모와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칼을 들었던 그 시대 스님들의 용맹이 어떠하였는지를 짐작 할 수 있다.

한국불교의 역사적 순간에 언제나 이름을 함께했던 천년 고찰 금강산 건봉사. 찬란했던 역사도, 고단했던 시간도, 이제는 모두 지나가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 한껏 웁츠리고 있었다. 머지않아 훗날 찬란했던 건봉사의 위성이 다시 재현되길 발원해 본다. ◆

논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랑이다

보경 / 한문불전대학원 1학년

인문고전

논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랑이다



침착디 대로하게 유 선생님의 유품을 들었라
하고는 시체를 걸 끌어 이에 대꾸를 드렸라
—
‘자네는 왜 시체를 걸 끌어 가지고 있느냐?
그 시체가 불쌍하는 말입니다.
전 소지 주제에 걸려 얼굴이 찌르면
정 주은 것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저에게 걸려온 것입니다.
같이 노동하여 살면서 서로
교감, 품위가 있는 것은 소조자
되리라 틀림이 없습니다.’

—『논어』

한길사

많은 사람이 한번쯤은 욕심내어 책장을 넘겨보지만 그 끝을 보지 못한 채 책꽂이 한쪽에 장식되어 있을 법한 책, 논어.

어느 날 종무소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책 한 권을 욕심내어 집어 들었다.

이번엔 반드시 끝을 보리라, 논어.

한길사에서 나온 ‘인문고전 깊이읽기’ 시리즈의 하나인 이 책은 표지부터 올드하지 않아 시선을 끈다. 성급한 맘에 얼핏 책 속을 훑어보면 빼곡한 글씨속에 부분부분 그림이 들어가 있고 곳곳에 자주색 커터를 가미하였으며 다양한 글씨체를 사용하여 자칫하면 지루할 수 있는 동양고전을 좀더 재미나게 볼 수 있도록 독자들을 생각한 수고로움이 보인다.

이 책의 작가인 신정근 씨는 동양철학 박사로 성균관대학 유학대학에서 10여 년간 재직하였으며 지금까지 동양철학 분야의 연구를 줄기차게 해온 결과로 전문서적과 대중교양서적을 왕성하게 출간하신 분이다.

그렇다면 작가는 이 책 속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2500년 전의 논어를 풀어나가고 있을까?

살아서는 성인으로 자처한 적 없지만 죽은 뒤 그 이름이 굳건해진 ‘성인공자’, 먹고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기술을 배워야만 했던 젊은 시절의 공자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따뜻하게 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고 사람을 탁월하게 설득하는 언어능력을 키우게 되었다고 한다. 작가는 이를 편의점과 치킨집 아트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에 종사하고 있는 현대의 젊은이와 비유하고 있고 나아가 그들에게 공자를 성인이나 스승으로 보지 말고 친구나 룰모델로 바라보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책의 후미에는 『논어』를 알기 위해 더 읽어야 할 책, 공자와 관련된 사상가, 공자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용어 해설, 공자에 대해 묻고 답하기, 공자의

『논어』에 대한 중언록, 공자연보 등의 주註가 덧붙여져 있어 독자로 하여금 공자와 논어에 보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 책의 공자 연보에 따르면 공자는, 기원전 551년 노년의 아버지와 18세 소녀였던 어머니의 아합으로 태어났고 3살 되던 해 그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17살 되던 해는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소년가장으로 일찍부터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하지만 공자는 일생 중 많은 부분을 경제고에 시달리며 힘들게 보냈지만 자신을 알아봐 주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군자의 태도로 살았다.

작가는 논어의 편집순서를 정한 제자와 후학의 심리상태를 따져서 논어에서 다루는 핵심주제 아홉 가지를 뽑고 그에 어울리는 원문을 인용한 뒤 해설하는 형식으로 이 책을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주제로 논어의 첫 글자인 学를 풀어 공자사상의 대표로 간주하고 이를 공자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낸 글자이며 동아시아 문화의 방향을 규정하는 특별한 개념으로 보았고, 두 번째 주제로는 마지막 구절의 명명자를 삼아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엄청난 학습의 노력으로 시대의 스승이 되었지만 결국 운명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공자를 그렸다. 작가는 이러한 구조를 배움(學)으로 시작해서 최대치(命)으로 끝나는 구조로 보고 차의 가속장치와 제동장치처럼 세상을 높이 나는 날개와 날아오를 수 있는 한계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외에도 이 책에서 작가는 다양한 시선으로 의義, 군자君子, 예禮와 서恕, 미美, 정政, 인仁, 효孝와 명名 등의 대표 문자를 차례차례 설명해 나간다. 논어의 원전을 뽑아서 지은이의 지식과 상상력으로 풀이하고 다시 원문을 첨부하여 해석한 뒤 다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재차 해설하여 마치 독자를 바라보듯 친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나가고 있다. 또한 이 책은 공자의 일생을 보여주는 그림인 「공자 성적도孔子聖跡圖」를 글 내용과 맞물려 등장시켜 글자로만 풀어가던 내용을 그림으로 다시 환기시켜 보여준다.

논어 속에서 공자는 스스로를 ‘한 가지 주제에 깊이 열중하다보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나아가는 길에 즐거워하며 삶의 시름마저 잊어버려서 자기 앞에 황혼이 찾아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였던 사람’으로 소박하게 표현하였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무한한 열정을 지니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근심걱정 하지 않는 낙천적인 사람이 바로 공자인 것이다.

혹업고惑業苦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의 일생. 공자 역시 그러한 과정으로 태어났기에 드러나지 않은 그의 일생 가운데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고통과 슬픔도 있었으리라. 하지만 공자는 충실과 믿음을 자기 행동의 주인으로 삼고, 정의(본분)를 쫓아 자신의 고상함을 우뚝 솟게 했다.

그런 공자가 오늘 작가의 입을 빌려 자신의 이익과 물질에만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랑이라고. ●

운문소식



▲ 진도 팽목항



▲ 단오 산행



▲ 자재요양병원 개원식



▲ 3사관학교와 쇠랑오계 업무체결식



▲ 여름 어린이 데이캠프

- 5월 22일 여름철 개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5월 25일 제1회 화랑연구소 세미나가 선열당에서 있었습니다.
- 5월 30~31일 진도 팽목항에 일진 주지스님 원법 강사스님 대학원생스님 그리고 화엄반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6월 2일 단오날을 맞아 대중스님들이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 6월 6일 여름철 결계포살이 대웅보전에서 있었습니다.
- 6월 13일 여름철 첫 自恣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6월 15일 자재요양병원 개원식에 명성 회주스님, 일진 주지스님, 여러 강사스님들과 대학원생스님 그리고 화엄반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명성 회주스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 6월 21~22일 제55차 전국 어린이 지도자 연수회가 속리산 유스호스티운에서 '희망찬 어린이 포교, 새로운 출발, 행복한 천진불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려 교화부스님 31명이 1박 2일간 다녀왔습니다.
- 7월 1일 선열당에서 3사관학교(교장 원홍규 장군)와 화랑오계 업무 협약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3사관학교 임원진과 운문사 명성 회주스님 흥륜 학장스님 일진 주지스님 진광 학감스님과 여러 강사스님들 대학원생스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7월 4일 여름철 학인스님들의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7월 6일 운문사 여름 어린이 데이캠프가 '가족 봇다 체험'이라는 주제로 있었습니다. 기존의 어린이들만의 체험이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 7월 10일 운문사 부설유치원(원장 44회 도진 스님) 원생 200명이 운문사 수목원에서 여름캠프를 하였습니다.
- 7월 17일 대구시 중구청에서 일진 주지스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 7월 24일 조계종 교육원에서 개최하는 제1회 학인암불시연대회에 개인전 15명 단체전 42명의 운문사학인스님들이 참가하여 조계사에 다녀왔습니다.
- 7월 25일 여름철 두 번째 自恣 및 여름방학 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습니다.
- 35일간 여름방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도와주신 분

- 명훈 스님 • 지산 스님 • 윤금자 • 정해옥 • 구윤희 • 정연식
- 이종군 • 이기태 • 이정숙 • 최희영 • 노기용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신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 * 2002년에 「雲門誌」를 신청해 주신 분들은 10년이 지난 관계로 주소가 삭제되었으나 신청을 원하시는 재기신도분들은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연(1809~86) 「연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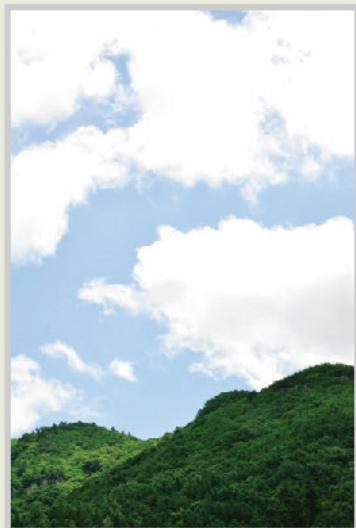
통권 129호, 여름호, “타오름 달”

별이 쓸어지는 여름 밤하늘을 본 적이 있나요? 내가 밤하늘에 떠 있는 것인지 별이 나에게로 온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합니다. 별은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보다 월씬 먼 거리에 그리고 이미 없어진 별도 있겠죠.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우리가 본다는 것보다는 지나간 별의 빛을, 흔적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항상 우리는 정말 보고 있는 것인지 사실을 보는지 거짓을 보는지 모른 채 그냥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그 자리를 관찰해보는 건 어떨까요……? – 摯景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학인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129호 여름호 「운문논평」은 쉬게 되었습니다.



훤 추름 오려서 뉴더기 입고
푸른 물 떠다가 뉴동자 삼았네
햇속에 주옥이 가득 찼으니
온몸이 밤 하늘에 별처럼 빛나네.

- 첨혜 선사 清虛禪師 -

雲門僧伽大學

714-881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번지 雲門寺 / 편집부 (054)370-7139 / 종무소 (054)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여름호·통권 제129호·2014년 7월 23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운문승가대학 / 발행인·명성(전임호)
고문·진광 / 편집·운문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나경 / 편집위원·나경 / 사진·편집부 / 표지사진·나경(심연) / 삽화·해운 / 편집디자인·Design
MARU(디자인 마루) (053)426-3395